

山地型 寺刹에 있어 造景植物 配置形式에 관한 研究

沈載成·裴貞寬·徐炳基
培材大學校 園藝造景學部

A Study on The Planting Arrangement of Ornamental Trees And Shrubs in Intermane Buddhist Temples.

Shim, Jai-Sung · Bae, Jeong-Kwan · Seo, Byung-Key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현황을 개관하고 조경식물을 통한 가람의 종교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불교신도들의 경건한 수도와 함께 관광적 효과를 한층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지형 사찰인 낙산사, 부석사 및 불국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찰경내 수목의 식재 현황 및 유형

조사대상 사찰에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는 곳인 대웅전 앞에는 아무런 교·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다. 극락보전과 무량수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사찰에 따라 매자나무 외 15종이 식재되어 있었다. 또한 불국사의 비로자니불에서는 백목련을 위시하여 25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낙산사와 불국사의 원통전 및 관음전에는 사철나무 외 총 26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2. 수목과 사찰 건물과의 연관성 및 산지형 사찰의 교관목 식재모형

수목과 각각 건물의 특성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불교적 의미를 갖는 수종으로서 배롱나무와 불두화가 식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기후 환경과 친화적인 식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수목과 사찰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식형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조사를 토대로 산지형 사찰에서 교·관목을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rrange in ornamental trees and shrubs the planting that leads to an appropriate type of templescape. The study was designed primarily as an example for each Buddhist temple which desires further decoration with several ornamental plants, doubles the effectiveness of the Sen-Buddhist meditation, and boosts tourists' attraction.

To investigate the planting status and type of trees and shrubs in the precincts of Buddhism temples, we chose three temples : They are Nagsansa, Boogooga and Booseugsa, which are intermontane area temples all together. The results investigat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Planting status and pattern in temples

Open spaces of the Daewoongjeon in all temples, a main Sanctuaries in temple buildings, where Buddha is enshrined in, we could not find any kind of trees or shrubs to be planted.

Muryangsujeon, a symbol of "Future", which can be also found at Boosugsa temple, is living in Western Elysium world and takes mercy on mankind of this life. *Taxus cuspidata* was planted at this Muryangsujeon, known as an immeasurable bliss building, where an Amitabha is enshrined in.

Total 25 species of trees and shrubs were planted around Birozani building of Buddhist temples. Birozani is enshrined at the Birojeon of Boollgooga temple.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which is a Buddhist saint for pursuit of fortune and blessing to relieve the mankind is enshrined at Wonchonjeon, Daebijeon and Kwaneumjeon which are able to observe at both Boogooga and Nagsansa temples, where *Euonymus japonicus* trees including other 26 species could be found in common at both temples.

2. Correlation between trees/shrubs and temple buildings

Trees and flowers symbolizing Buddha are often planted as material sources of gardening

to decorate : They are *Lagerstroemia indica* as Buddha's flower,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sembling Buddha's head, *Tilia mandshurica* producing the beads of a rosary, *Gardenia jasminoides* Ellis with white flower blade and flower of bliss, not flower to this day and Lotus flowering clearly in the pond filling with dirty water which is able to clarify the world full of crime, infidelity and injustice. Among these Buddhist plants, however, *Lagerstroemia indica* could be found in all three temples, and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at both Nagsansa and Boosuga. Also, *Lagerstroemia indica* was planted at all three temples and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at both temples of Nagsansa and Boosuga. *Tilia mandshurica* and *Gardenia jasminoides* Ellis were not found in any temples which might becom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n relation of the buildings of each temple as a sanctified space, the planting of trees and shrubs was not considered for the arrangement, templescape architecture or species. And, also, we could not find in the study any special relationship of trees/ shrub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emples.

With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precise studies we presented here in this paper newly designed model of templescape in intermontane buddhist temples which can be applied for planting and arrangement of trees or/and shrubs. Basic principles of model in mind are :

To consider the correlation of the dominant between plants and temple buildings.

To plant trees/shrubs for special functions as well as conditions of temple location.

To make tree arrangement correlating to Buddhism spirit.

To induce environment friendly plants to be planted, suitable to regional conditions.

This redecorated model of templescape might be used as a canon of the tree planting and arrangement in the precincts of Buddhism temples.

Key Words : Templescape, Ornamental plants, Intermontane area temples,

I. 서 언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불교는 조선조 500년여간 정신적 이념으로 삼아온 유교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자리잡아가면

서 인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기나긴 역사와 함께 불교는 비록 종교적인 색채를 띤 것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문화의 한 축을 장식하고도 남는다. 사찰은 그것이 지닌 건축적 특성, 우리나라의 독특한 고유양식을 전승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드문 한국적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자적 위치에서 사찰의 문화적 가치는 대웅전을 비롯한 부속건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찰이 세워져 있는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을 공유하고 있고 또 자연미의 이용도를 증진하고 있기에 조경적 차원에서 사찰이 갖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하기가 어렵다(심재성 등, 2002). 자연과 함께 하는 수도의 장, 그것은 우리나라 사찰이 지닌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는다. 지형과 지세와 그리고 경관 전체와 잘 조화되는 위치에 있는 사찰은 그래서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수목과 초생식물, 물과 돌과 같은 자연물과 전혀 다른 재료들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도출하여 자연의 경지에 접근시키고 여기에 느낌을 조영함으로써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의 형태야말로 가장 순수하다. 이는 인위적으로 작성되고 조직적이고 균형적인 것보다 더욱 인간의 마음을 파고든다. 사찰의 조경은 바로 이러한 사상을 담아내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정착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자연미에 대한 감정은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과 한참 간격이 있다.

우리의 것은 보이는 것을 축조하여 집안으로 끌어드리는 강요적 행위가 아니라, 보이는 그 자체를 집안으로 흡인하고 그것을 음미함으로써 도의 경지로 몰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찰에 사찰만으로서 고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다. 사찰 또한 이제 세상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 참선을 하거나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친근함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찰 그 자체가 분명 선을 행사하고 도를 닦으며 참선하는 이들의 전용공간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참선목적이 아닌 관광을 뜻하면서 사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도 사찰은 그 요소를 발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경이 사찰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작업이 되었고 자연적인 것도 좋지만 거기에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어 사찰이 가고자 하는 목적에 오리려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된다면 사찰은 조경이라는 하나의 미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경내, 그리고 경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물이지만 인간의 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교·관목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저간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도심부 평지형 사찰이 주로 인공경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형적인 형식을 취하는 반면, 산지형 사찰은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적응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비정형적이고 천연 그대로의 형식을 부각시키고 있다(金南喆 및 洪光杓, 1993). 그렇기 때문에 산지사찰의 경관구성은 건축적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조경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①자연지형의 변경을 통한 지형경관의 조성, ②수(水)의 도입을 통한 수경관(水景觀)의 조성, 그리고 ③식물재료를 통하여 얻어지는 식재경관 등, 세 가지 유형의 조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金南喆 및 洪光杓 1993)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찰형식은 산지중정형이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이 형식은 다시 점차 변화·발전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입지성이나 공간구성 그리고 경관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성을 지닌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다(河在浩 등, 1997).

그러므로 한국전통사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산지 중정형 사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유한 측면을 원형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다양한 형식적 틀이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산지 중정형 사찰에 조영된 인공경관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河在浩 등, 1997).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을 위시한 동양 각 국들은 그들의 조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특히 전반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및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채취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다(河在浩 등, 1997). 이러한 현상은 사찰뿐만 아니고 주요 사적지에서도 한결같이 발견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申宇均, 1986 : 申宇均 및 金光東, 199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경내 수목에 대한 관심도는 과실의 이용 → 관상 → 녹음수 이용 → 건물과의 조화 및 경관효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申永澈, 1980) 사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을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과의 조화 및 경관효과를 위한 상록수와 관상을 위한 화목류가 그 주류를 이루는 전통사찰도 발견되고 있다(河在浩 등, 1997).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경관을 조경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개관함으로써 식재된 식물을 통해 가람의 종교적 이미지를 얼마나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불자들의 경건한 수도는 물론, 관광적 가치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사찰은 산지형 사찰 가운데서 강원도 낙산사, 경북의 불국사와 부석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산지형 사찰은 경사가 심해 석축을 쌓아 단을 만들고 단 위에 영역을 한정지어 건물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산지형 사찰은 공간의 수직이동이 심해 공간 체험적 성격이 강하다.

전국의 유명사찰에 있어 자연적인 면이나 인공적인 면 등, 사찰내부를 대상으로 수목 식재와 유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류 및 조사는 우선 건물의 유형을 정리하여 각각의 사찰조사에 따른 통일성을 부여하였고, 그 다음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과거는 대적광전 비로전이 이에 해당한다. 이 비로전은 '법신불'(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현재는 법당의 대웅전이 이에 해당한다. '대웅'은 현재에 깨달음을 얻어 진리를 두루 펼친 영웅을 뜻하며, 따라서 대웅전은 그 깨달음을 얻은 큰 영웅인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미래는 극락전 무량수전이 이에 해당한다. 무량수전은 서방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인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이 이외에 현재에서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현재 기복적 성격의 보살로서 관음보살이 있는데, 원통전, 대비전 및 관음전은 관음보살을, 그리고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각각 주불로 모시고 있다. 또한 산신각, 칠성각 및 독성각 등은 우리고유의 토속 신들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전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및 미래에 해당하는 각 사찰건물의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그 건물의 성격과 함께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첫째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특정수목을 조사하여 수목의 종류, 의미 및 식재 위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사찰 내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을 주불에 따라 분류 조사하였으며, 셋째 이상의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대사찰의 입지유형에 따른 수목의 식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조사된 수목의 위치와 종류, 크기 등을 기초로 하여 수목의 배치유형을 설계에 적용하였다.

대상지 조사는 3회에 걸쳐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사찰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건물과 수목은 끝없이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역시 변화하리라고 본다. 더욱이 자연 친화적인 조경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옛 선인들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 조경의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전형의 하나인 사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예외 없이 발견되고 있다.

3개 가람 각각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식재 유형과 주불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가람의 특성별 수목과 불교적 의미의 수목식재를 조사해 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찰의 식재현황

가. 낙산사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말사이다. 예전에 불교에서는 큰 구원의 빛 속으로 중생을 인도해 간다는 의미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동해·남해·서해 각각 세 곳에다 관음도장을 열었다. 우리나라에 건립되어 있는 3대 관음도량은 동해의 양양 낙산사, 남해의 금산(錦山) 보리암(普提庵) 및 서해의 강화 보문사(普門寺)가 있다. 그런데 이 3개의 관음성지 중에서도 낙산사는 제1성지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다른 곳과는 달리 원통보존이 본전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낙산사의 건물별 수목식재 현황은 <표 1>와 같으며 식재 현황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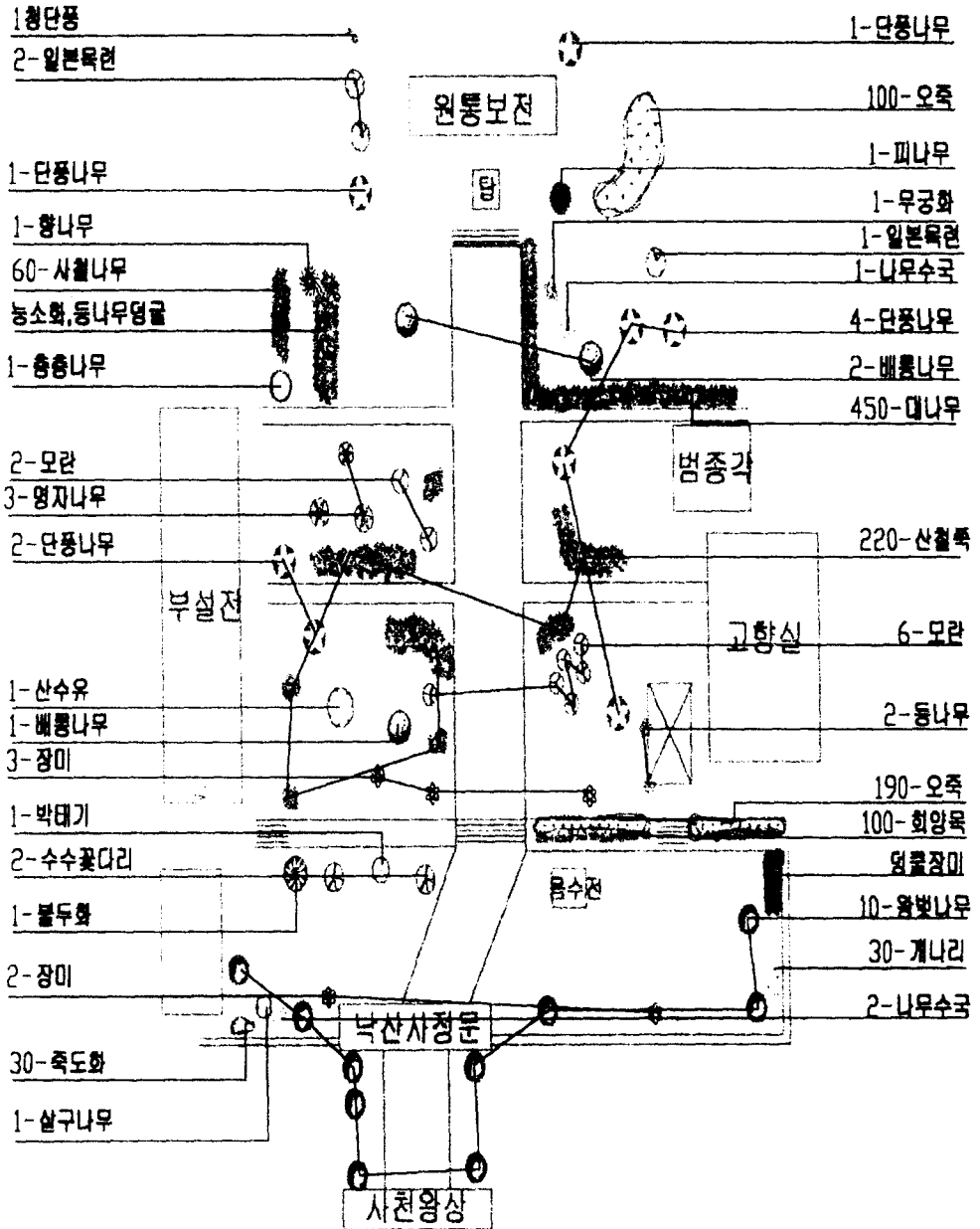
낙산사는 산지형 사찰이지만, 입지적으로 산지형과 연관되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거의 볼 수 없다. 식재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수목 내지는 화목으로 조영을 하였는데, 대체로 금당 주위는 청단풍, 원산지가 일본인 일본목련, 단풍나무, 무궁화, 나무수국, 피나무 및 능수화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또한 배롱나무를 산식하여 종교의 의미를 발산하고 있고 더불어 사찰의 위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오죽, 향나무 및 사철나무 등이 군식 또는 단식되어 공간미 창출을 보태주고 있다.

<표 1> 낙산사 건물별 수목식재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원통보전	부설전	고향실	범종각	기타
<i>Forsythia koreana</i>	개나리	30					+
<i>Hydrangea paniculata Sieb</i>	나무수국	1					+
<i>Campsis grandiflora</i>	능소화	1					+
<i>Acer palmatum</i>	단풍나무	9	+	+	+	+	
<i>Phyllostachys bambusoides</i>	대나무	450				+	
<i>Rosa spp</i>	덩쿨장미	1					+
<i>Wisteria floribunda</i>	등나무	2			+		
<i>Chaenomeles lagenaria</i>	명자나무	3		+			
<i>Paeonia suffruticosa Andr</i>	모란	8		+	+		
<i>Hibiscus syriacus</i>	무궁화	1					+
<i>Cercis chinensis</i>	박태기	1					+
<i>Lagerstroemia indica</i>	배롱나무	3		+			
<i>Vibunum opulus var</i>	불두화	1					+
<i>Euonymus japonicus</i>	사철나무	60					+
<i>Cornus officinalis</i>	산수유	1		+			
<i>Rhododendron poukhanense</i>	산철쭉	220		+	+	+	
<i>Prunus armenaca</i>	살구나무	1					+
<i>Syringa oblata Lindley var</i>	수수꽃다리	2					+
<i>Phyllostachys nigra Munro</i>	오죽	100					+
<i>Prunus yedoensis</i>	왕벚나무	10					+
<i>Magnolia obovata</i>	일본목련	3	+				
<i>Rosa hybrida</i>	장미	5		+	+		
<i>Kerria japonica</i>	죽도화	30					+
<i>Cornus controversa</i>	층층나무	1					+
<i>Tilia amurensis</i>	피나무	1					+
<i>Juniperus chinensis</i>	향나무	1					+
<i>Buxus microphylla var</i>	회양목	100					+

부설전 앞에는 모란, 명자나무, 산철쭉, 장미, 산수유 등 화사한 관목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향실 앞에는 모란과 장미가 군식되어 있어 전체적인 형태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1> 낙산사 식재 현황도

진입부에서부터 경내로 들어오는 도로변에는 대형 왕벚나무가 열식되어 있어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사하면서도 정숙함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들의 배식으로 사찰에 대한 조형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음은 사찰이 음미해야할 본성의 다른 하나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단조로운 색채를 띠고 있지만 석가의 두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불두화, 노란색을 띠면서 불륜을 잉태하고 있는 수수꽃다리, 자홍색으로 물들여진 박태기 등을 불교의식을 염두에 두고 둔 식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이 각각 다른 화목으로 배식되어 있어 풍부한 형태미와 함께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화목의 식재는 사찰 승려들의 많은 공이 곁들여진 흔적을 엿보게 한다.

나. 부석사

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장으로 초조인 의상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로,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봉황산 중턱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다.

부석사가 위치한 봉황산은 선달산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뻗은 줄기에 위치하는데, 동쪽으로는 문수산, 남쪽으로는 학가산의 맥이 휘어지고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감아 돌아 거대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못 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봉황산을 향하여 읍하고 있는 형상이고 보니 풍수지리상으로도 뛰어난 길지(吉地)에 속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창건주인 의상 화엄학의 사상적 특질은 의지(義持)라는 그의 별호에 걸맞게 실천 운동을 근본으로 삼고 아미타 신앙과 화엄신앙을 부드럽게 조화시켰으며 그 아미타 신앙과 정토신앙이 바로 부석사 구조에 남김없이 반영되었다.

들어가는 진입부의 대형 석단은 공간구성의 치밀함과 시각의 순간적 착각을 불러오고 거기에 신비감을 더해 주고 있다. 대형교목이 가로막고 있어도 시각적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이 절묘하다. 중심축을 따라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의 위계(位階)가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은 전형적인 산지형 사찰이라고 부르기엔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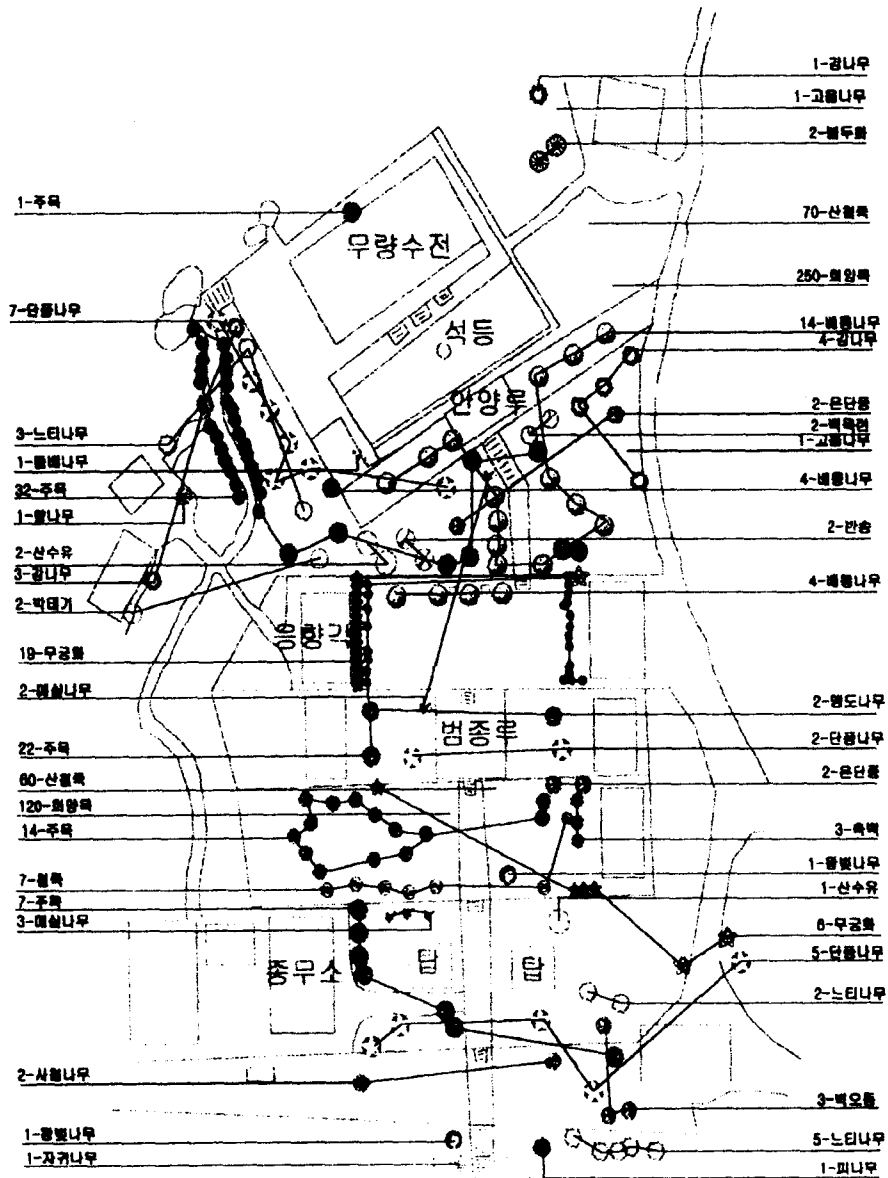
부석사 건물별 수목식재 현황은 <표 2>과 같으며 식재 현황도는 <그림 2>와 같다.

진입부의 느티나무, 피나무, 왕벚나무의 식재는 대형교목이면서도 단의 높이 때문에 조금도 부담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 종무소 주변은 단풍나무와 주목의 식재가 많아 단조로움을 깨워주고 있으나 진입로와 건물과의 구분을 위한 회양목이 어지럽게 군식되어 있음은 그나마 옥의 티로 투정을 부려본다.

<표 2> 부석사 건물별 수목식재 현황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무량수전	안양루	옹향각	범종루	종무소	기타
<i>Diospyros kaki</i>	감나무	8	+	+				
<i>Diospyros lotus</i>	고욤나무	2	+					
<i>Zelkova serrata</i>	느티나무	10					+	
<i>Acer palmatum</i>	단풍나무	14	+		+	+		
<i>Pyrus pyrifolia</i>	돌배나무	1					+	
<i>Prunus mume</i>	매실나무	5	+		+	+		
<i>Hibiscus syriacus</i>	무궁화	25						+
<i>Cercis chinensis</i>	박태기	2		+				
<i>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i>	반송	2	+					
<i>Lagerstroemia indica</i>	배롱나무	22	+					
<i>Magnolia denudata</i>	백목련	2	+					
<i>Firmiana simplex</i>	벽오동	3					+	
<i>Viburnum opulus var. calvoscens</i>	불두화	1					+	
<i>Euonymus japonicus</i>	사철나무	2					+	
<i>Cornus officinalis</i>	산수유	3					+	
<i>Rhododendron poukhanense</i>	산철쭉	130					+	
<i>Prunus tomentosa</i>	앵도나무	2			+			
<i>Prunus yedoensis</i>	왕벚나무	2					+	
<i>Acer saccharinum</i>	은다풍	4	+					
<i>Albizia julibrissin</i>	자귀나무	1					+	
<i>Taxus cuspidata</i>	주목	76	+		+	+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철쭉	7					+	
<i>Thuja orientalis</i>	측백	3					+	
<i>Tilia amurensis</i>	피나무	1					+	
<i>Juniperus chinensis</i>	향나무	1						+
<i>Buxus microphylla</i>	회양목	370					+	

안양루 단하에는 배롱나무가 대칭으로 많은 수량이 열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경내의 시각적 변화가 크고 대형교목의 식재와 수종이 다양하나 산만하고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이 사찰이 갖고 있는 결점으로 부각된다. 창건과 더불어 의상대사가 심었다는 선비화가 조사당 앞에 식재되어 있어 종교적 의의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는다.



<그림 2> 부석사 식재 현황도

다.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 11교구 본사이다.

학 명	수종명	수량	사찰내 건물명							
			극락전	대웅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무설전	종무소	기타
<i>Carpinus laxiflora</i>	서어나무	6					+			
<i>Pinus densiflora</i>	소나무	3					+			
<i>Viburnum odoratissimum</i>	아왜나무	2							+	
<i>Juniperus virginiana</i>	연필향나무	1							+	
<i>Rhododendron schlippendachii</i>	연산홍	45			+	+			+	
<i>Phyllostachys nigra</i>	오죽	340			+				+	
<i>Prunus glandulosa for. albiplena</i>	옥매화	4								+
<i>Ginkgo biloba</i>	은행나무	3			+		+			
<i>Sasa japonica</i>	이대	150			+					
<i>Magnolia obovata</i>	일본목련	1			+					
<i>Paeonia suffruticosa</i>	작약	3								+
<i>Sasa borealis</i>	조릿대	1080					+		+	
<i>Taxus cuspidata</i>	주목	6				+				
<i>Ligustrum obtusifolium</i>	쥐똥나무	50								+
<i>Quercus acutissima</i>	참나무	1							+	
<i>Celtis sinensis</i>	팽나무	1							+	
<i>Chamaecyparis pisifera</i>	화백	4							+	
<i>Euonymus aurea</i>	황금사철	1								+
<i>Buxus microphylla</i>	회양목	35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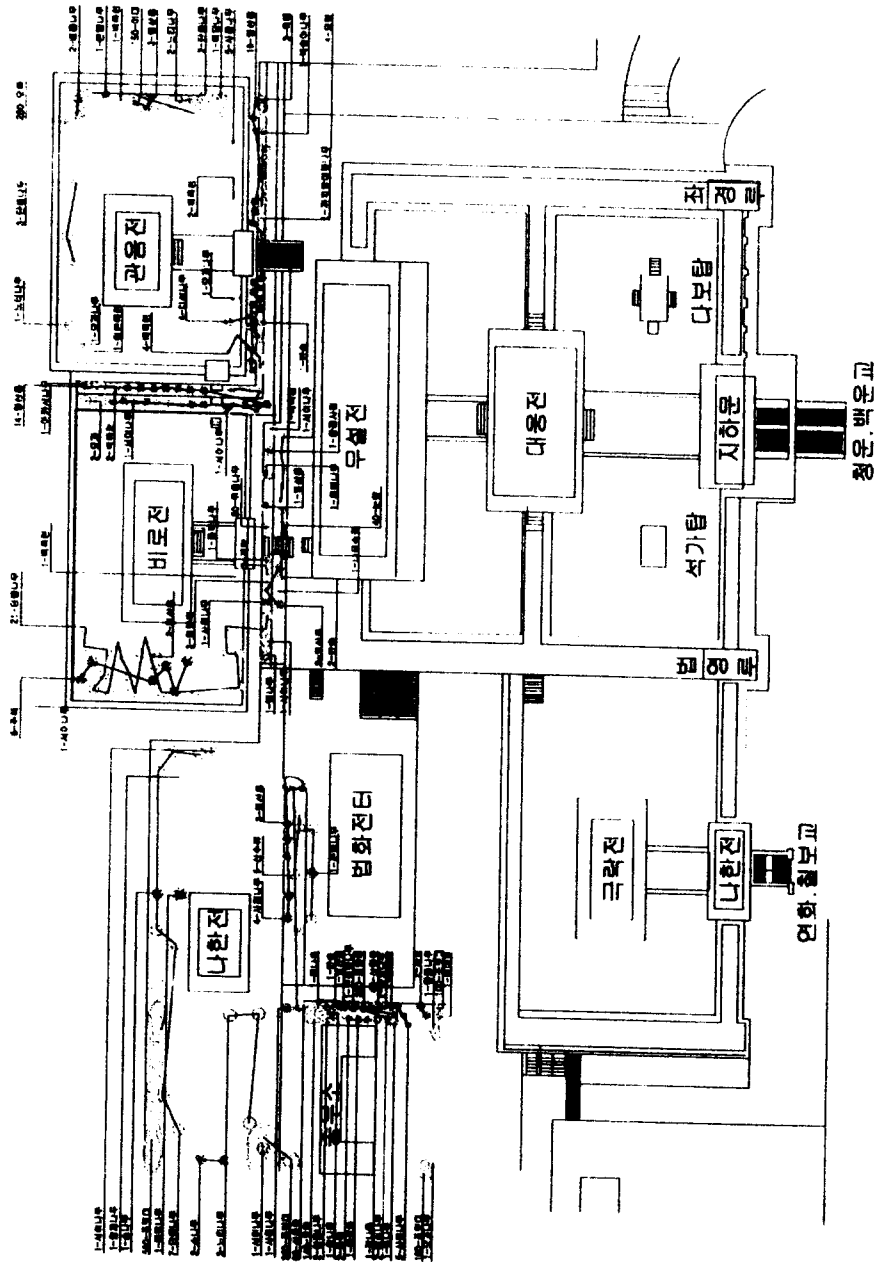
불국사에 있어서의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특이한 수종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1973년의 불국사의 복원과 더불어 수목의 식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가람의 입구인 안양문 쪽은 단의 목단식재와 옆쪽으로 오죽이 군식되어 있음이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사찰이 가져야 할 그 엄숙함은 이처럼 무엇을 식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도 목적에 부합되는 모양이 연출된다. 본당인 대웅전, 무설전, 극락전 등에는 수목이 없으나 높은 단을 이루고 있는 나한전에는 상당한 연륜을 쌓은 느티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 및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서 나한전의 무료함을 살짝 가려주는 효과를 뿌린다.

전면부 노단에는 산수유, 회양목, 사철나무 등의 식재되어 있어서 풍요감을 선물하고 있는데, 식재는 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로전은 노단 처리를 위한 관목류 식재와 단풍나무, 뽕나무, 팽나무 등이 어색하지 않다.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두화의 모종인 백당나무의 모습은 불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나무랄 데가 없다.

관음전에는 백목련, 백당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일본목련 등이 식재되어 있고,

노단식재 역시 화사한 관목류와의 혼재가 조화의미를 한층 부각시켜 건물과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넉넉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3> 北國사 식재 현황도

종무소 좌측으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반송과 무궁화가 식재되어 더욱 고귀하게 여겨지며, 연필향나무와 사찰에서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돌감나무의 향취는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친근감을 줘어주고 있다. 매실나무, 모과나무 등도 다른 수목과 함께 그 자태를 은은하게 뽐내고 있어 사찰의 정취를 한층 그윽하게 한다.

2. 건물별 식재현황

건물별 의미와 그에 따른 식재현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는 불국사 대웅전에는 아무런 교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미타불(서방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을 주불로 모시는 부석사의 극락전과 무량수전에는 주목이 식재되어 있다. 한편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불국사의 대적광전, 비로전에는 백목련, 영산홍, 산철쭉, 철쭉, 유카, 아카시아나무, 모과나무, 매실, 백당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사철나무, 황금사철, 스트로부잣나무, 벗나무, 서어나무, 동백나무, 쥐똥나무, 향나무, 회양목, 반송, 나무수국, 옥향, 눈향 등이 식재되어 있다.

관음보살주불로 모시는 낙산사의 원통전에는 오죽, 청단풍, 일본목련, 단풍나무, 피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층층나무, 무궁화, 나무수국, 일본목련,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불국사 관음전에는 배롱나무, 사철나무, 영산홍, 백목련, 옥매복숭아, 모란, 무궁화, 까치밥여름나무, 작약, 불두화, 미선나무, 느티나무, 백당, 단풍 등이 식재되어 있다.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지형 사찰에서는 진입공간과 단하부분에 대형교목의 식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물과 수목 식재와의 사이에 특이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3개의 사찰에서의 본전에서는 수목식재의 빈도가 현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불국사(대웅전)나 부석사(무량수전)의 경우는 본전 경내의 전면부에는 수목식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낙산사(원통보전) 등에서는 본전의 단하부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본전의 전면부에 본전불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수목의 식재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비로전에서는 수종이 다양하고 팽나무, 벗나무 등의 조류들이 즐겨 먹는 조이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어 이곳 역시 건물과 수종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비교적 화려하게 식재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원통전 및 관음전은 현세에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로써 약병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화려한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3. 식재와 종교적 특성

불교라는 종교적 의미와 관련성을 갖고있는 수종으로는 부처꽃과의 배롱나무가 있는데 이는 불교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의 머리형상과 비슷해서 이름이 붙여진 불두화, 우리가 보통 염주나무라 부르고 염주를 생산하는 찰피나무, 꽃잎이 희고 현세의 향기가 아닌 극락의 향기라는 치자나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아한 꽃을 피우고 모든 행사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불교를 상징하는 수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배롱나무는 과의 명칭에서 보듯이 불교를 상징하는 화목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 화목이 대웅전 내지는 대웅전과 근접한 위치에 식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사된 3개 사찰 중에서 이 나무가 이러한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식재되어 있는 곳은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불국사의 관음전뿐이다. 대신 낙산사 부설전에서 배롱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한편 불두화는 오직 낙산사의 경외에 식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두 개의 사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염주를 생산하는, 다시 말해 불교와 관련이 깊은 찰피나무는 사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앞으로 사찰조경에 있어서 수목이나 초목을 식재 할 때에 고려사항에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4. 산지형사찰의 기본식재모형

종합적으로 산지형 사찰에서 교·관목을 식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형<그림 4 참조>을 제시하였으며, 배식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첫째, 조사에 나타난 우점종을 건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식재
- 둘째, 불교와 연관성이 있는 수목의 배치
- 셋째, 지역적인 특성, 기후 환경과 친환경적인 식물의 식재
- 넷째, 식물의 특성상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한 식재
- 다섯째, 사찰의 입지와 기능과의 조화를 고려한 식재

산지형 사찰에서 단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가람 각각의 건물을 살리면서 교목을 식재할 수 있으므로 평지형 사찰과는 약간 다른 성향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본전인 대웅전에는 많은 식재를 하지 않고 주목을 주로 하여 전정을 함으로 요란스럽

지 않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식재를 하였으며 아미타부처(미래)를 모시고 있는 극락전에는 현실보다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자 화려한 수종인 단풍나무, 왕벚나무, 백당나무 등을 선택하였다.

비로자나불(과거)을 모시고 있는 비로전에는 앞에서 과거를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단아하고 정결한 이미지의 수목으로 선정하여 전면부에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쥐똥나무를 식재하고, 연구결과에서 나온 팽나무, 벚나무 등의 조이식물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단 산지형 사찰이기 때문에 평지형 사찰과는 다르게 수고가 높은 교목을 선정하여 전면에 식재하도록 시도하였다.

관음보살(현재)을 주불로 모시는 관음전은 현재에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로서 약병을 들고 있거나 꽃을 들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작약, 노란 잎이 상징적이면서 약용으로 쓰이고 열매도 식용할 수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식용할 수 있는 찰피나무 등을 식재하여 병을 고치는 보살이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산신각은 대나무, 불두화, 산철쭉 등을 식재하여 탕화에 나오는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요사채에는 평지형 사찰과 똑같이 승려들이 수행 중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수유, 불두화 등을 식재하고 모과, 감나무 등 과실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하였다.

참고문헌

- 金南喆·洪光杓, 1993. 三寶寺刹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研究, 寺刹造景 研究, vol. 1, 33-44
- 裴貞寬, 2001. 寺刹景觀에 있어 造景植物을 중심으로 한 配置形式에 관한 研究. 培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申永澈, 1980. 韓國 寺刹의 景觀과 植物相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申宇均, 1986. 忠義祠 境域의 植栽樹種에 관한 研究. 禮山農業專門大學論文集, 427-434.
- 申宇均·金光東, 1993. 顯忠祠의 植栽樹種에 관한 研究. 禮山農業專門大學論文集, 1-16.
- 심재성·배정관·서병기·최종명, 2002. 時代 및 宗教的 環境과 韓國의 造景 景觀形成 小考, 자연과학논문집, 제12권 1호,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85-101

李東述, 1997. 韓國寺刹寶鑑, 우리출판사, 서울. p.61

李 政, 1996. 韓國 佛教寺刹事典, 불교시대사, 서울. p.98

河在浩 · 洪光杓 · 金南喆, 1997, 伸巖寺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研究, 寺刹造景研究, Vol.5, 45-57